MZ포교 MZ스님

청년 주인인 '힙한' 템플…스님은 거들뿐

저스트비 템플 주지 준한 스님

www.instagram.com/justbe_temple

1년 간 도반들과 직접 리모델링
108배 하는 게스트하우스 오픈
덕숭총림 수덕사 포교당 등록도

스님은 예불·기도·청소 역할 뿐
다양한 프로그램들 청년 주도로
새로운 포교모델 확산되길 기대



서울 홍대 인근 개원한 저스트비 템플은 현대적 승가를 모토로 한 수행 놀이터를 꿈꾼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매일 새벽 5시 30분, 죽비소리와 함께 108배를 하는 게스트하우스. 아침 식사 전 좌선과 명상, 요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저녁에는 다도와 프리댄스, 드로잉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듣기만 해도 '세상 힙(Hip)한' 게스트하우스가 젊음과 예술의 성지 홍대 인근에 문을 열었다. '저스트비 템플(JustBe Temple)'로 불리는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이다.

저스트비 템플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방향을 만들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수행 놀이터'이자 현대적 승가를 모토로 2022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에 문을 연 게스트하우스 포교당이다. '세상 힙한' 것들이 모여 있는 듯 한 저스트비 템플 중심에는 주지 준한 스님이 있다.

"감정적으로 막히고, 단절되고, 불안하고,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는 느낌 등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고 있죠.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죠."

저스트비 템플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워싱턴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준한 스님은 룸메이트와 함께 자신들의 공간을 명상실로 꾸몄다. 친구들을 초대, 함께 예불 드리고 차를 마시고, 불교 철학을 토론하며 '명상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꿈꿨다.

금강경 번역 아르바이트 도중 맺은 '푸른눈의 수행자' 현각 스님과의 인연으로 출가한 준한 스님은 해인사승가대학과 율원을 졸업하고 출가자의 삶에 충실했다. 이후 룸메이트도 출가하면서 수년 전 함께 꿈꾼 명상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저스트비 템플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1년 여름, 관광객이 들끓던 홍대 인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스트하우스가 코로나19 사태 속 폐업하면서부터다. 준한 스님은 1000일 기도 회향을 100일 앞둔 어느 날, 건물주로부터 기도요청을 받았고 주소를 보는 순간 자신의 그림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룸메이트였던 백담 스님, 그리고 뜻을 같이 하던 젊은 청년들과 함께 6층 건물의 전체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건설 경험이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경비 절감을 위해 건축을 전공한 준한 스님을 필두로 벽을 부수고, 페인트를 칠하고, 전구를 고르는 것까지 하나하나 직접 했다. 그리고 13개월 후, 저스트비 템플이 문을 열었다. 덕숭총림 수덕사 포교당으로 종단 등록도 마쳤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인 저스트비 템플은 1층은 안내데스크와 다도, 독서공간 2층과 3층은 템플스테이와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1인용 숙소, 4층 사무실, 5층 부처님을 모신 법당으로 구성됐다.

법당에서는 매일매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108배, 차담, 염불, 프리 댄스, 드로잉, 소리 목욕(Sound Bath)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열린다.

"은사 현각 스님께서는 기존 포교방식도 존중하지만 젊은 친구들과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면 함께 공부하고, 살고, 먹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저는 무언가를 알려주거나 가르쳐주는 이가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준한 스님은 "저스트비 템플의 주인은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본인을 비롯해 상주하는 5명의 스님들은 예불과 기도를 하고 이곳을 다녀가는 이들을 위해 밥하고 청소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다양한 저녁 프로그램은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 주도로 이뤄진다.

한국 전통 불교문화와 젊은 청년들의 콜라보가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증거다.

준한 스님은 새로운 포교모델로서 저스트비 템플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정적인 수행 위주의 포교에서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중심이 되길 바란다.

준한 스님은 "점차적으로 저스트비 템플은 균형과 창의성, 그리고 자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 더 많은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허브가 되고자 한다"면서 "음악, 디자인, 건강관련 첨단기술, 청년 프로젝트 등을 하며 수행 놀이터 저스트비 템플에서 함께 놀자"고 말했다.

"새벽보초 함께하는 게 군포교 노하우"

'꽃스님' 군종장교 범정 스님

www.instagram.com/kkochsnim

진해기지사령부 해안사 '꽃스님'
장병에 형이자 친구 같은 존재
"군대, 포교에 가장 좋은 터전"

인생 가장 힘든 시기 부대끼며
관계 맺기로 행복 주는게 포교
SNS 통한 일상공유 인기몰이


범정 스님은 장병들에게 형이자 친구 같은 존재로 시선을 맞춰 나간다.

경남 창원 진해기지사령부 해안사(海安寺)에는 '꽃스님'이라 불리는 스님이 있다. 부대 내 군법당에서 법회를 주관하고,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며 정신력 함양 및 사기를 돕는 역할을 하는 군종장교 범종 스님이다.

15살이었던 2008년, 막냇동생과 구례 화엄사로 들어와 절 생활을 시작한 범정 스님은 우석 스님을 은사로 2012년 사미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2017년 현역으로 입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문화재를 전공하던 스님은 "군대야말로 젊은 청년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고 포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터전이다. 어린 나이에 큰 경험치가 될 것"이라는 은사 스님의 조언으로 제대 3년 만인 2021년 군종장교로 자원입대했다. 두 번째 군 생활을 한지 2년째, 스님은 지금 군인이자 스님, 두 가지 소임을 해내고 있다.

신병들을 위한 법회가 있는 날이면 군복을 차려입고 법회를 진행하는 범정 스님은 장병들에게 형이자 친구 같은 존재다.

'빡센' 군 생활을 이미 해본 경험 때문일까. 시선을 맞춰 다가가는 스님의 온화한 소통 방식은 장병들의 군 생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죠. 복지 혜택이 예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젊은 장병들은 예전을 알지 못하죠. 새벽 보초가 힘들다는 걸 알기에 저도 새벽에 나가곤 해요. 간식을 한 번씩 건네주는 것도 노하우 중 하나죠."

인생에 있어 가장 힘겨운 시기인 군복무 중 몸을 부대끼며 만나는 스님에게서 감로수 같은 부처님 가르침만큼이나 더 없는 위안과 힘을 받는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범정 스님은 "장병들에게 포교해야지 하는 마음은 애초에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머리를 깎은 스님이 때로는 군복을, 때로는 승복을 입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포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 누가 오지 않더라도 가사장삼 수하고 예불을 드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무신에 흰색 양말을 항상 깨끗이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SNS도 마찬가지다. 현재 4000여 명의 팔로워를 가진 스님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군 생활뿐 아니라 행자시절, 요가, 차담, 포행, 도반들과의 이야기 등 일상을 공유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근저에는 부처님 말씀이 녹아져 있다.

범정 스님은 "장병들에게 불교를 그저 가르치고 주입시킨다고 해서 포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그보다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스님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포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군에서 장병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제대에 대한 생각도 잠시 접어뒀다는 스님은 "꽃 같은 수행자가 되고 싶다"는 말했다.

"기약 없는 누군가에서 제가 품은 향을 맡게 해주는 꽃다운 수행자. 그래서 저는 꽃이 되고자 합니다."

2023 謹賀新年 계묘년

大韓佛教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대종사
주 지 보 운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 합장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 확정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